

부산대학교병원 뇌은행에서는
사후 뇌기증을 통한 뇌조직연구를 통해
퇴행성 뇌질환들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롭고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상담

부산대학교병원 뇌은행	010-6687-7311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051-240-7311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051-240-7309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051-240-748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055-360-2122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부 뇌기증



뇌기증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노년의 희망을 심어주세요!!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에서는 완치가 어려운 퇴행성뇌질환(치매,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질환)의 확진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하여 퇴행성뇌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사후 뇌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뇌은행



KBRI
한국뇌연구원



협력
병원

한국뇌은행
KOREA BRAIN BANK

퇴행성뇌질환자들의 뇌기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부
뇌기증



1

퇴행성 뇌질환의 확진은 뇌조직 검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루이체치매, 파킨슨병 등의 완치가 어려운 퇴행성 뇌질환들은 사후뇌조직검사만으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외국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뇌조직 검사를 통해 퇴행성뇌질환들을 확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거부감으로 사후 뇌기증 및 뇌조직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퇴행성뇌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해 뇌조직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 하면서 대표적 노인질환들 중 하나인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 및 치료법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사후 뇌기능을 통한 뇌조직 연구는 퇴행성뇌질환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력과 가족력이 강한 퇴행성 뇌질환들은 사후 뇌기증을 통한 뇌 조직 연구를 통해 자녀 및 손자, 손녀들의 퇴행성 뇌질환 예방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